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랑가라 컬리지는 49th Ave에 위치해 Langara-49th Avenue Station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시설도 깨끗하고, 카페나 식당도 있습니다. 문 열 때 장애인을 배려하여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를 헤맬수도 있지만 일주일 내로 적응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강당에서 듣기평가를 본 후 5개의 반으로 나눕니다. 성적 기준으로 반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은 반마다 다르며, 보통 나눠주는 바인더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저희 반은 주로 친구들과 1:1 혹은 모둠으로 나누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제도 반마다 다른데 저희 반은 숙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숙제가 있다면 홈스테이 인터뷰 정도였고, 웬만해서 수업시간 내에 해결했습니다. 바인더가 무겁기도 하고 들고다니기 귀찮아 첫주를 제외하고는 교실에 두고 다녔습니다. (숙제가 없었기 때문)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캐나다는 습하진 않지만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항상 필수입니다. 정말로.. 특히 Discovery Vancouver, Kayaking을 갈 때는 꼭 챙기세요. Kayaking할 때는 모자도 챙기면 좋습니다. Museum, Aquarium을 갈때에는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가기 때문에 점심도시락을 간단하게 가지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전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날은 먹고 버릴 수 있도록 지퍼백에 챙겨갔습니다. Whistler Trip은 반팔에 겔옷 혹은 긴팔을 입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올라가서는 기온이 떨어져 춥기 때문에 겔옷이라도 챙겨가세요. 그리고 많이 걷지는 않지만 곤돌라를 많이 타고 버스타는 시간이 많이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편하게 입으세요. Activity활동을 할 때, 물이나 초코바 같은 간단한 과자를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시 오래 걸어도니 당 떨어져요. 그리고 추가 비용은 점심을 사먹는다거나 음료나 물을 살 때만 비용이 듭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첫 주는 반팔 반바지를 입어도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주부터 슬슬 추워지기 때문에 반팔과 얇은 긴팔을 섞어서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겔옷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마지막주에는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합니다. Hastings Street과 같은 마약거리를 가면 마약을 한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가지마시고 가실 일이 있더라도 혼자 가지마세요. 또,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무엇을 권유한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도착한 날 집과 사용할 방을 소개시켜줍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 지 물어봅니다. 저는 가기 전 홈스테이 가족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 준비해가야 할 것이나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미리 물어봤습니다. 된다면 미리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세면용품을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매번 점심은 아침에 식탁위에 올려놨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은 챙겨주신 도시락으로 먹고 저녁은 거의 외부에서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맛집보다는 그냥 끌리는 데 들어가서 먹는 게 더 맛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외식 비용이 좀 비싸서 평균 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학교에서 나눠주는 COMPASS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녀 교통비는 거의 들지않습니다. 1존과 2존에 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1존 카드는 2존과 3존에 갈 때 추가 비용이 들고, 2존에 사는 사람은 3존으로 갈 때만 추가 비용이 듭니다. 단, 공휴일 및 주말과 18시 30분 이후에는 모두 1존가격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 빅토리아를 갈 때는 COMPASS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페리를 탈 때와 빅토리아를 가서는 5달러를 내고 하루동안 이용할 수 있는 1day이용권을 받아야합니다. 가기 전 COMPASS카드와 지하철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하철은 간단하지만 처음에 가면 헤맬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입장료	약 70,000	빅토리아, 부차드가든, 밴두슨 보태니컬 가든.
외식비	약 300,000	
선물 및 쇼핑	약 1,000,000	
합계	3,228,700 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가기 전 유심을 사가세요. 길을 찾거나 이것저것 할 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전화, 데이터 무제한 21일권을 샀고, 한국 발신도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캐나다에 가기 전 홈스테이 가족에게 미리 메일을 보내서 가져가야 할 것,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김이랑 한국 화장품 같은 선물도 준비해갔는데 좋아하셨습니다.

물이 귀해서 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편하고 절약적이기 때문에 텀블러 하나를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가서 하나 장만하세요 ㅎㅎ

장시간 비행을 하기 때문에 목배게를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서 구경할 것 , 먹어봐야할 것 등 다양한 밴쿠버의 정보들을 미리 알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3주동안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다양한 학교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일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3주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힘들긴 했지만, 돌아와서 후회도 없고 정말 즐겁고 좋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버스 멈추는 것이 줄을 당기는 것인데, 한국과 다르게 내려야할 정류장이 지나면 바로 당겨야 합니다. 처음에 이것 몰라서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렸습니다. 캐나다는 정말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편한 운동화를 챙겨가세요. 그리고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를 걸려서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챙겨간 약을 먹고 금방 나았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맘에게 얘기하니 다양한 차를 준비해 주셔서 저녁마다 따뜻한 차를 먹었습니다. 캐나다는 동전이 많아서 처음에는 버벅땀지만 캐나다 동전에 대해 공부를 한 번 하고 나니 금방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꾸준히 영어공부를 해서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과 많이 못 논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간다면 더 많은 곳을 가보고 못 먹어본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빅토리아, 킷실라노 비치, 스탠리 파크에서 자전거타기, 다운타운 , 록스스트리트 등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세요 꼭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Richmond night market



Whist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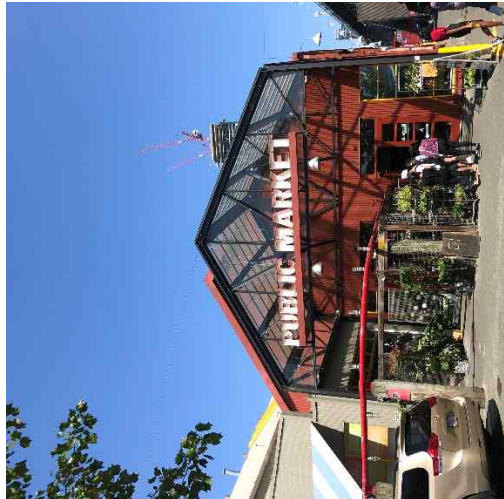
Lynn Canyon Park



Victoria



Down town Steam Clerk



Grandvill island